

그로기 상태 사업체들 한숨 돌려

4만 불 긴급대출 10월까지

정부, 월세 보조도 연장 검토

연방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 실시 중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 CEBA를 연장 운영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부총리겸 재무장관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주요 시중 은행이 사업체들에게 최고 4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 기한을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현재 73만개 이상의 업체에게 290억 달러의 대출금이 지급됐다"며 "사업체 명목의 은행계좌가 없고 개인계좌만 있어서 대출받지 못한 업주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일 캐나다하나은행 구재혁 부장은 "한인업소 대출 건수는 300건 이상이고 대출조건이 확대된 지난 7월 이후 신청자는 약 40명"이라며 "대출조건이 완화된 이후 증빙자료 등록에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리과정에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신한은행은 지난 8월 본보 보도 당시 약 110명



정도의 한인이 대출을 받았으며 신청조건이 완화된 이후 신청건수가 15건 정도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7~8월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CECRA)의 연장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프리랜드 장관은 "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나 개선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인업주들은 월세보조가 8월 이후에도 연장되는 한편 임대주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에게 직접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월세지원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업주가 4~8월 임대료의 25%를 세입자와 건물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건물주가 지원 프로그램

을 지원하기로 합의해야 하며 사업자는 매출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70%이상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채현주 북부연영회장은 "최근 스탠 조 온주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월세보조 프로그램은 배정된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만 지급된 일종의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연장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연방정부의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하원의 자료에 따르면 월세보조에 총 30억 달러가 책정됐으나 2020-21 회계연도에 약 9억3,100만 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프리랜드 장관 역시 "임대주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겨울 안에 캐나다 식당

60% 문 닫을 수도"



요식업 비즈니스 60% "3개월 버티기 힘들어" 상공회의소 "대중·정부에게 요식업계 위기 알려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경기로 3달 안에 캐나다 식당의 60%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캐나다 상공 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의 도움을 받아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29%에 달하는 요식·숙박업 비즈니스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나머지 31%의 식당 비즈니스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는 3달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말인즉슨 국내의 60%의 식당과 숙박업계는 올 11월 이후에는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캐나다의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중 가장 심각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업계는 단연 숙박업과 요식업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요식·숙박업의 GDP 성장률은 이전 분기에 비해 무려 40%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경기로 인해 국내 83%에 달하는 요식·숙박업 비즈니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임시 휴업을 한 적이 있고, 약 60%의 비즈니스는 일부 직원을 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전국의 10%가 넘는 식당들이 폐업을 결정했고, 요식업계의 일자리는 80만 개가 넘게 증발하기도 했다.

활동 재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내 입장 정원이 제한되면서 팬데믹 이전과 같은 매출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방 정부는 여름을 맞이해 임시 패티오를 설치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

격을 입은 비즈니스를 위해 임대료와 직원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 겨울에는 올 3, 4월 수준의 불경기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캐나다 상공 회의소는 요식업계가 안전한 외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중과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 'Out Restaurants'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Out Restaurants'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시민들에게 외식·테이크아웃 횡수 증가를 요청하고, 지역 의원들에게는 요식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알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상공 회의소 페린 비티(Beatty) 회장은 "식당은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대중과 정부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전국의 모든 요식업 비즈니스들이 연합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쿠버 8월 주택 판매 40%, 가격 5.3% 상승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탄탄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월별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8월 주택 판매 건수는 총 3047건으로 전달(3128건)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전년 동기(2231건) 대비 3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판매 건수는 8월달의 10년 평균 판매량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평년 수준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 봄에 코로나19 사태로 주택 구매를 보류한 바이어들이 여름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며 "저금리와 전반적인 공급 제한 역시 오늘날의 주택 시

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을 팔려고 내놓은 매물 수도 지난해 동기(3747건)와 비교해 5813건으로 55.1% 증가했다. 또한 현재 이 지역에 분양 예정인 주택 역시 총 1만2803채로, 전달의 1만2083채보

다 늘어났다.

이에 따른 광역 밴쿠버 지역 모든 주거용 부동산(주택, 콘도, 아파트)의 기준 가격은 현재 103만 8700달러로, 지난해 8월에 비해 5.3% 상승했고 전월인 7월에 비해 0.7% 올랐다.

8월 주거용 부동산의 실제 매물 대비 거래 비율 또한 23.8%로, 가격 상승 신호가 감지된다.

통상 주택가격의 하락은 이 거래 비율이 12% 미

만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며, 주택가격의 상승은 거래 비율이 20%를 초과할 때 일어난다.

보고서는 "이 비율이 향후 몇 달 동안 20% 이상을 유지한다면, 주택 가격의 상승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이 지역 단독주택 판매량은 총 1095채로, 전년 대비 5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주택 유형의 평균 가

격은 지난해 8월에 비해 6.6% 오른 149만1300달러에 거래됐다.

아울러 아파트의 판매량은 총 1322채로, 지난해 대비 19.4% 증가했다. 평균 거래 가격은 68만5800달러로 전년비 4.5% 올랐다.

이와 함께 연립 주택 역시 총 620채로, 지난해 8월에 비해 51.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가격은 80만6400달러로, 전년 대비 4.4% 상승했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NGLISH CLASS
원어민 영어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즈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전통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디자인
개인 레슨

Ai Id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COODING BUDDIES
Tel: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You Tube
Tel: 403-926-3890

현 화실

Tel (403) 861-9290